“하나님 납시오!”의 당사자 신앙

(열왕기하 10:28~36)

28.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벧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31.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2. 이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33.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납시오!"의 당사자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2011년 12월에 권력을 잡은 뒤로 당 정 군의 100명이 넘는 측근들을 처형했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죽은 자들이 많은데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염두에 둔다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공포정치를 전제로 할 때에 이러한 이유까지는 납득이 가지만, 그 이상으로 황당한 처형의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8월 31일에 북한의 내각부총리를 지내던 김용진이 처형되었는데 김정은 연설 중에 안경을 닦았다는 이유입니다. 그에 앞서서 처형되었던 제2인자 고모부 장성택은 군사정변을 꾀했다는 죄목을 덮어씌웠지만, 실제로는 28살밖에 안 된 조카 앞에서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치는 물개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장성택은 오뉴월의 소걸음 박수를 쳤던 것으로 항공기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고사포로 총살을 시켰답니다. 또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은이 주재한 회의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소총 여섯 대로 무차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 주석이자 최고위원인 김정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할지 그야말로 “주상전하 납시오!”를 외치던 시대의 재현 같습니다. 오히려 조선시대의 주상전하도 충신들의 직언을 들어야만 했고 그게 싫어서 참수형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주석 납시오!”를 마음에서 항상 듣고 살아야합니다.
옛날에는 권력이 강했던 안동김씨 경우에는 임금조차 바꾸려고 뒷담화를 했었다지만, 지금 이 북에서는 그런 뒷담화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정은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뒷담화를 못하는 이유는 10년 20년간 함께 산 이웃이라도 밥을 먹으면서 김정은을 욕하면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잡아내서 보상금 받으려고 란파라치가 생겼다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포상이 크기 때문에 이웃이든 부모든 신고해버린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의 삶 속에 같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정은을 마음속으로는 욕을 해도 겉으로 드러내서는 욕을 할 수 없습니다.
주상전하가 납시면 전부 일어나서 자세와 의관을 바로 하여 엎드려 절을 합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러 들어오면 전원 기립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는 뒷담화 신앙은 없고 “하나님 납시오!”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데 내가 가는 곳 어디서든지 마음으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입으로 외울지라도 그것이 뒷담화식이 되어버리면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가리키는 당사자와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납시오!”라는 말을 듣기 원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 납시오!”의 음성이 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상전하가 납시면 아무도 딴 짓을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납시는데 딴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며 산헤드린공의회에서 얻어맞고 협박을 당했을 때에 행4: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납시오!”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죽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한 것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납시오!”라는 음성을 들어서 입으로 외우던 하나님 이름이 가리키는 당사자를 그 현장에서 대면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납시오!”라

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의 통치에 관한 서술을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예후는 이전에 요람 왕이 바알 신전을 파괴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철저하게 바알 신전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할 정도의 철저함과 규모를 가지고 바알 숭배를 진멸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러한 종교개혁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고 그 상으로 4대에 걸쳐서 북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예후의 집안이 다스린 89년은 한 가문이 북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 후로 예후 왕조가 끝나고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북 왕국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이러한 예후의 종교개혁은 불행하게도 미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혹처럼 따라 붙은 것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뿌리 뽑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후의 치적을 마무리 지으면서 두 번씩이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음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로 32절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복지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었지만 그 부분이 완전히 아람의 치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이세벨이 출생한 베니게와 적대관계가 되었고 남 왕국의 아하시야 왕을 죽임으로 인해서 적대관계가 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지가 점점 지워지게 됩니다.
결국은 BC.753년에 예후왕조가 끝나고 BC.722년에 앗수르에 의해서 남 왕국 유다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선민의 복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복지는 만족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늘 감사한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 복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가 반복해서 강조되는 이유는 그만큼 구분해내기도 어렵고 떠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우리도 반복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8~31절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음을 길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 북 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둘째, 그 금송아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성전 접근을 막은 것과 금송아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이 동전의 양면이 되어 여로보암의 죄가 성립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납시오!”의 신앙을

짓밟아서 뿌리째 근절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양을 떠올려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의 의미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셔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음의 지성소에는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상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돈 자식 정치권력 인기 등일 수 있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죄가 이 자리에서 성립합니다.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돈이나 자식이면 바로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깥에는 기도를 뜻하는 분향단이 있는데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고 싶어서 추구하게 되고, 돈을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았다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것을 반드시 추구하게 되는데 분향단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여놓은 것들을 많이 가짐으로서 배 부르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등대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내는 판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외에 들어온 다른 것들로 인해 죄악으로 찌들게 된 삶 전체가 양이 죽듯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번제단에서 죽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만을 모시고 분향단의 의미대로 추구하고 떡상의 의미대로 배불러서 등대의 의미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성전을 차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내용물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는 내용물이 있고 엄마와 자식의 관계에는 내용물이 있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의 관계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마치 박제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다 속을 다 긁어내고 겉만 남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거해버린 여로보암의 죄는 엄청난 것인데 “여호와 납시오!”의 당사자 신앙을 여호와 뒷담화 수준의 신앙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금송아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임으로서 선민들이 아무리 그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 당사자는 존재하지 않는 뒷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내용이 다 제거되자 마음의 지성소에 버젓이 돈이나 사업을 담고 그것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몸이나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독자 이삭을 죽였는데, 우리는 마음에 아들딸을 담고 그들이 잘되기만을 기도합니

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당사자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여호와 납시오!”라는 말은 들리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나 교계 안에서 기복신앙으로 비난받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말해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교단들 또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걷는 경향이 짙습니다.
바알 숭배하듯이 노골적으로 돈을 찾지는 않지만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 사업 명예 자녀 등이 들어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뒷담화 형식으로 믿어지는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알 숭배 못지않게 위험한 이유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상전하가 납신다는 소리가 들리면 살고 있던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납시오!”라는 소리에 제일 먼저 봐야할 것은 지금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석에 앉아있었더라도 주상전하가 우리 집에 납시면 상석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돈이 들어왔다가도 하나님께서 납시면 돈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귀하고, 나라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는 제거할 수 없기에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가동되었다면 선민들의 삶에서 아침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을지라도 오늘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양이 죽어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납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납실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처 계약을 유리하게 따는 것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으니 내가 죽었음으로 알고 “하나님 납시오!”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칼로 쓰셔서 복지를 잘라내시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북 왕국 건국 때부터 끊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납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당사자와 대면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리키는 당사자를 삶의 현장에서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납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하신 일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눈길과 그 하나님의 아심이 지상에 미치고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그곳에 납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끌어안음으로서 하나님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위기가 생겼든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도 그 옛날의 주상전하가 납셨다면 그보다 큰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납시오!”라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따라 나도 죽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자리에 서서 부활하고 마음이 승천하여 하나님아버지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승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솟아오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원의 나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삶의 차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겹쳐짐을 뜻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는 “하나님 납시오!”라는 소리에 대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 최상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당사자로서 대할 수 있게 되면, 복지를 잘라내었던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이 하나님 손에서 버려지고 복지는 유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납시오!”의 당사자 신앙을 통해 오늘도 복지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뒷담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줄 아는 착각에서 빠져나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 납시오!”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납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함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허락하신 복지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